코로나 틈새 골프장 요금 배짱 인상…‘골퍼들만 봉’

호남권 1년새 15%~19% 올라…카드비 등 부대 이용료도 슬그머니 인상
그린피 내리라고 대중제 전환 세금 깎아줬더니 ‘골프장들 배만 불린 꿀’
해남 한 골프장 주말요금 29만5000원으로 1년새 30%나 올려 원성 사기도

광주·전남 골프장들이 코로나19로 골프장으로 몰리는 수요를 노리고 그린피 등을 천정부지로 올려 골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해외 골프여행이 사실상 막힌데다, 소규모 야외스포츠로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인식으로 골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골프장들이 고객 서비스 방안을 그대로 두고 수익 극대화에만 불을 켜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23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년(2020년 5월~2021년 5월)간 호남권 골프장 입장료는 주중 19.3%, 주말에는 15.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의 A골프장의 경우 1년 전만 하더라도 18만~23만 원 수준인 요금이 주말 1인당 요금이 29만5000원으로 30% 가량 올랐다는 게 지역 골퍼들 얘기다. 카트비 등을 제외한 순수 그린피만 평일 22만원, 주말 25만원 수준으로 광주·전남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받고 있다.

그린피의 경우 통상 1년에 한 번, 봄 시즌에 오르는게 일반적이지만 지난해에는 겨울에도 수시로 올렸다는 게 레저산업연구소 관계자 설명이다.

그린피 뿐 아니라 카트비용 등 부대 이용료도 슬그머니 인상했다. 무안의 B 골프장은 지난해 4만원이던 카트비를 연말에 8만원으로 올렸다. 다른 골프장도 도우미(캐디) 이용 요금을 1만원 가량 올렸다.

이러다보니 지난해 전국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31.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용료가 올랐다고 서비스가 나아진 건 아니다. 당장,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샤워장 이용을 금지하는가 하면, 일부 골프장에서는 골프장 내부 식당 이용만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방역수칙 강화로 실외체육시설업의 경우 ‘야외에서 음식물 설취금지’ 등을 들어 ‘지정 장소에서만 음식물 섭취 가능(레스토랑·그늘집 등)’이라는 조건을 붙여 실내 식당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그린피보다 더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이들 골프장들은 정부의 골프 대중화 조치로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가격 통제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골프장 입맛에 맞게 요금을 책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광주·전남지역 41개(광주1개·전남 40개) 골프장 중 공사중인 2곳을 뺀 39곳 중 82%인 32곳이 대중제로 운영하면서 회원제보다 높은 이용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세제 혜택을 받고 그린피 등 요금은 회원제보다 높게 책정하면서 서비스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골퍼들만 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건물주는 임대료를 인하하고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하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대중제이면서도 유사회원권을 발행하는 등 편법 운영하는 골프장도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가격 통제를 받지 않아 대부분의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고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면서 “대중골프장에 대한 세금혜택을 축소하던지, 아니면 입장료를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통역·번역인 지정 규정 있는데… 외면 받는 외국인 피고인 반성문

법원 “변호사 한글 자료로 충분”
혐의 뒤집을 내용 없으면 주목 안해
언어 장벽 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존경하는 재판장님. 반성문을 보냈는데 번역을 해서 제출이 됐는지 궁금합니다”(외국인 피고인),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 “왜 도착하지 않은거죠?”(외국인 피고인), “저는 모르겠습니다”(재판장).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특수절도,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노동자 A(27)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 때 오간 얘기다. A씨 등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월~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1심과 형량이 달라지지 않자 반성문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궁금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러시아 국적으로 지난해 8월 12일 광양 한 폐차장에 침입, 자동차촉매변환장치 100개 이상을 화물차에 싣고 도주한 것을 비롯, 같은 해 나주·함평 폐차장에서 200개가 넘는 자동차 촉매변환장치를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 사건 가해자들이 검·경 조사부터 재판까지 감형(減刑)을 염두에 두고 탄원서나 반성문을 내는 것은 흔한 일이다.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정’, ‘반성’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동생을 잃은 가족은 “반성문을 쓰면 감형되곤 했던 판례를 보고 가해자가 반성문을 쓰면 그보다 많은 탄원서를 써서 내겠다”고 매일 탄원서를 낸 바 있다.

그렇다면 외국어로 쓰여진 반성문·탄원서는 어떻게 처리될까.

대법원 예규(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는 외국인 피고인을 위해 공소장 번역(4조), 통역·번역인 지정 규정(7조 4)을 두고 있다. 국선변호인이 외국인 피고인 접견 과정에서 통역·번역을 의뢰한 경우 통·번역인에게 수당과 통역·번역료 등도 지급(16조)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외국인 피고인의 모든 반성문·탄원서 번역까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시각이다.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수사 자료와 양형에 반영할 자료는 검찰, 외국인 피고인측 변호사가 내는 ‘한글’ 자료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 반성하는 게 양형에 유리하긴 하지만 혐의를 뒤집을 내용이 없으면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반성문의 효과 여부를 떠나 외국인 피고인들이 자국어로 개인적 성행, 환경, 등을 담아 제출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번역을 외면하는 데 따른 부정적 입장도 흘러나온다.

민주시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장 김정희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번역과 통역은 이뤄지고 있지만, 외국인 피의자 스스로 방어권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야하는 만큼 경제·언어적 장벽이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통문화관서 성년례 풍습 재연 23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에서 성년례 풍습을 재연하는 ‘성년례 이야기’가 공연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법꾸라지’ 전두환 오늘 항소심도 불출석…법원 대응 주목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다시 열린다. 전씨 변호인이 전씨의 불출석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법원이 어떻게 풀어나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24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시작한다.

전씨는 지난 10일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24일에도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이 가능하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밝힌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항소심 첫 기일에 “법령상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을 할 수 없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면서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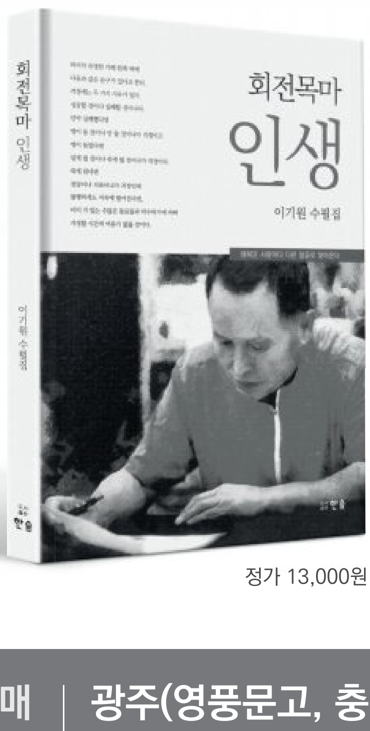
결국, 이대로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워낙 관심사가 큰 재판이라 피고인 없이 진행될 경우 재판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재판부가 당시 전씨측을 향해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는 거라면 인정신문, 선고기일을 제외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한 점도 무관하게 들리지 않는다. 일단, 법정에 출석한 뒤 불출석 허가를 요청하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출석을 담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인장까지 발부했지만 집행되지 않아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다는 전례가 있어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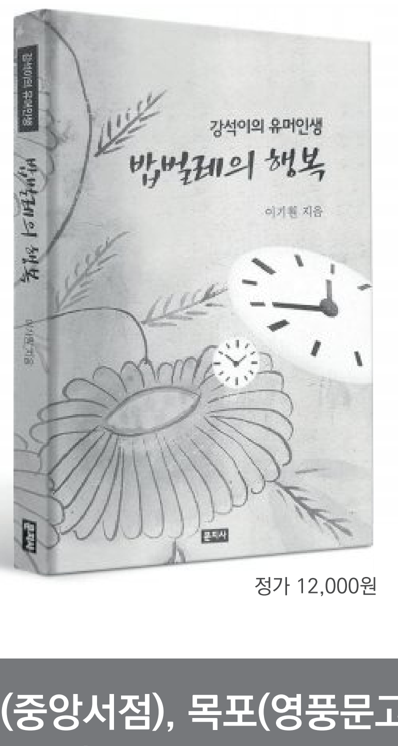


정가 13,000원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다.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냐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2,000원

‘밥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홍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